

● 협회 동정

특히 금년은 창립20주년을 맞는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큰 해임을 강조하면서 협회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협회20년사 편찬,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 유치 및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사업 마무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하였다.

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안)」,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보수규정 개정(안)」의 3개 심의안건과 「협회창립 20주년사업 및

2005 한중일 협력회의 개최결과」등 3개 안건이 보고되었다.

협회는 새로운 20년을 위해 내년도 사업방향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특별사업 전개와 기반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일반 및 수익사업회계 부문을 전년보다 12%가 증가된 1,887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 및 예산(안)은 앞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되어진다.

『200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자문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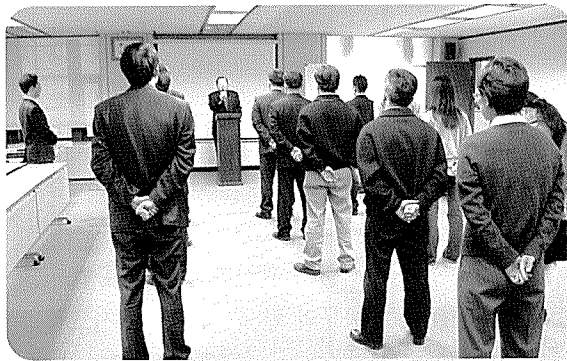


「200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및 경제규모 산출방안에 관한 연구」과제(과제책임자 : 채성기 교육연구원장)의 검토·자문회의가 12월 26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 자문위원 및 내·외부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에 새롭게 실시하는 경제규모 산출을 위한 다변량모형 개발에 관하여 용역업체인 리서치윙(대표 : 신숙희)에서 최종 조사·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동 과제는 매년 실시하는 정책연구과제로 '03년부터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에 대한 매출액 및 경제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RI이용실태 지표(매출액, 생산, 수입, 이용현황, 인력현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시계열분석과 RI등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비율을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기여율에 대한 다변량모형개발」이 추가되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 종무식 개최



12월 30일(금) 2005년도 종무식이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채화목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회의 등 각종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2006년 병술년에는 협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여 병술년을 맞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5년도 협회 10대 뉴스

-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ICI) 유치 확정
 - 4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ICI에서 차기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의 서울 개최를 확정
- 협회 20주년 기념행사
 - 9월 27일 호텔 리베라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방사선관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한·중·일 방사선 이용기술 연구 발표회 개최
- 홈커밍데이
 - 5월 30일 박익수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임원 초청회동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시스템 운영 개시
 - 5월 30일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시스템(RIS)을 개발하고 운영개시
-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시행
 - 4월 1일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
- 동위원소 뉴스 100호 발간
 - 3월 23일 'RI NEWS'의 통권 100호('05. 4월호)를 기념하여 제호를 '동위원소 뉴스'로 변경하고 지면도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 협회 20년사 편찬
 - 9월 27일 협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년사 편찬·배포
- 원자력안전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5월 18일 원자력안전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 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 의한 연구 사업 수탁
 - 10월 1일 원자력 전공자대상 원자력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사업과제 시행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연구 사업 수탁
 - 5월 1일 방사선 및 RI이용에 관한 주요지표 및 경제규모 파악을 위한 RI 이용실태 연구사업 시행

원자력관련 과학기술부 고시 배포

협회는 12월 12일(월) 최근 제정 공포된 원자력관련 과학기술부 고시를 회원사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배포된 고시>

- 제2005-18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제2005-7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제2005-1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판매기관에 한함)
- 제2004-27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 원자력의학원 등에 한함)

●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는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6호)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파괴검사 수행에 대해 검사자와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검사실명제가 도입되어 원자력발전시설, 중화학 시설, 교량 등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

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NDT : Non Destructive Testing)기술은 방사선 및 초음파, 전자기 등의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물체(철/비철 금속)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의 상태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 도입된 이후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1500억원 내외의 비파괴검사업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 발간

- 지난 40년간 축적된 환경방사능감시 자료의 종합정리 -

과학기술부는 지난 40년간 축적된 우리나라 환경방사능 감시자료와 활동을 종합 정리한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을 발간하고, 12월 13일(화) 오후 2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과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